

일본경제리뷰 No.18_05

< Special Issue >

일본기업들의 국내회기에 제동

Contents

- I. 한일경제동향
- II. 이달의 일본경제
 - 1. 경기·무역 동향
 - 2. 경제정책
 - 3. 기업전략
- III. KJCF News
- IV. 이달의 추천자료
- V. 한일경제지표



< Special Issue > 일본기업들의 국내회귀에 제동

□ 최근 엔고가 주된 원인

- 일본경제신문(2018.4.25.)에 의하면 일본기업들의 국내회귀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
 -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과의 생산비용 차이가 축소되어 이제까지 일본 국내로의 회귀가 확대되어왔으나, 최근 엔고로 다시 일본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싸졌기 때문임
- 다만 해외소비자들간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평가가 높음
 - 현지생산이나 아니면 국내생산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기업들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음

□ 일본과 해외간 생산비용 격차 다시 확대

-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활용품 관련 대기업체의 한 담당자는 일본과 해외의 제조비용 차이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생산비율을 높일 생각이 없다고 함
- 미쓰비시 UFJ모건스탠리 증권에 의하면, 아시아·대양주 20개국의 제조원가는 2012년에 평균으로 일본의 74%이었으나, 2017년에는 78.6%까지 상승함
- 그 배경은 바로 환율에 있음
 - 2012년 달러당 80엔을 상회한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은 2013년에 시작된 일본은행의 이차원금융완화로 상황이 일변함
 - 2015년 6월에는 달러당 125엔대까지 엔저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한편, 해외자회사들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역수입에는 엔화표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음

□ 아시아 국가들의 인건비 상승도 하나의 요인

- 아시아의 인건비 상승도 생산을 일본 국내로 돌리는데 한 몫을 함
 - JVC켄우드는 2015년말에 카네비게이션의 일부를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일본 나가노현에 공장을 이전함
 -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도에도 제조업의 피고용자수가 천만명대를 회복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

- 2016년경부터는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중국경제의 감속과 영국의 EU탈퇴결정 영향으로 엔고로 반전됐으며 2018년에는 112엔대로 시작했으나 3월에는 104엔대까지 엔고가 진행됨
- 인건비도 경영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
 - 일손부족 등을 배경으로 2018년 임금은 20년만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임금인상은 경기회복에 필요하나 수익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지속력이 없음
- 때를 같이하여 기업들은 해외생산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함
 -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일본계 해외법인에 의한 매출액(일본의 역수입)은 2017년 10-12월에 270억 달러였음
 -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국내 공급망 단절과 엔고로 과거 최고였던 2011년 7-9월 (282억 달러)이래 최고 수준임
 - 2015년 이후 거의 250억 달러를 하회해왔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

□ 해외생산비율의 상승

- 일본 내각부가 2018년 1월에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5년 후 해외생산비율 전망은 25%임. 2015년 1월 조사(26.2%)를 피크로 하락하고 있었으나 3년 만에 상승으로 반전함
- 미쓰비시 UFJ모건스탠리 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엔고가 진전되면 아시아와의 비용 격차가 앞으로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
 - 국내 설비의 가동율이 저하되고 기업이 증산을 위한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면서 경기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

□ 일본국내 생산현장의 개혁이 국내회귀 여부의 관건

- 일본 국내로의 회귀여부는 생산현장의 개혁에 달려있으며 이는 인공지능(AI) 등을 구사하는 생산라인의 자동화임
 - 카시오 계산기는 세계에서 판매하는 저가격대 손목시계의 국내생산비율을 높힘
 - 20달러 전후로 값싼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야마가타 공장에서 자동화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제조비용을 일본의 1/4인 태국과 동등하게 할 수 있다고 함

□ 일본제품의 품질에 대한 해외소비자의 관심도 국내회귀에 기여

○ 국내회귀 여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해외소비자임

- 시세이도는 36년째 되는 신규 공장 건설을 결정했음
- 2017년도에는 방일 관광객이 3천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다시 일본제품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- 해외에서의 인기에 응하기 위해서도 일본 국내에서 생산을 증가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음

○ 최근에는 엔고가 한풀 꺾이고 있는데 일본경제연구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

- 현재 환율수준이면 해외이전을 가속시킬 정도는 아니라면서 생산라인을 쇄신해나가면 일본 국내에서도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임

○ 이와 같이 환율이나 인건비에서부터 제조기술의 진화나 소비자의 기호에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가가 성장력의 명암을 갈리게 함

1. 한일 경제 동향

□ 무역

○ 4월 對日무역적자는 2,450백만 달러로 3개월 만에 감소

○ 對日수출은 2,479백만 달러로 전월의 5.9% 증가에서 5.6% 감소로 반전

- 對日수출 10대 품목 중 금속광물과 석유화학품의 對日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, 산업용전자제품과 전자부품 등의 對日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함(한일경제지표 1 참조)

○ 對日수입은 4,929백만 달러로 전월의 16.4% 증가에서 5.4% 감소로 반전

- 對日수입 10대품목 중 정밀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對日수입이 증가한 반면, 수송기계와 정밀기계와 전자부품의 對日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(지표 2)

< 2018년 4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수출	2,626	9.6	5.9	2,479	17.6	-5.6	10,136	16.8
對日수입	5,213	1.1	16.4	4,929	7.9	-5.4	19,127	6.5
무역수지	-2,587	-6.3	29.3	-2,450	-0.4	-5.3	-8,992	-3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일본인투자

○ '18.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급증

- '18.1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68백만 달러로 전기비 135.9%의 큰 폭 증가

○ '18.3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269억 엔으로 전기비 38.7% 감소

- '18.1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203,157억 엔으로 전기비 247.6% 증가

< 일본인투자 추이 >

	2017	2017.4분기	2018.1분기	2018.2월	2018.3월
일본인투자(백만 달러, %)	1,862 (90.1)	156 (-82.0)	368 (135.9)	-	-
전체 외국인투자(백만 달러, %)	22,970 (7.8)	9,361 (134.6)	4,934 (-47.3)	-	-
일본의 對韓직접투자(억 엔, %)	4,112 (18.8)	924 (-27.8)	993 (3.3)	439 (54.0)	269 (-38.7)
일본의 해외직접투자(억 엔, %)	559,108 (-18.0)	131,519 (-12.7)	203,157 (247.6)	33,892 (-31.1)	120,104 (254.4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,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
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○ 소프트뱅크 한국에 태양광 투자

-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 태양광 투자에 나섬(MK, 2018.5.4.)
- 소프트뱅크의 재생에너지 자회사인 SB에너지는 5월 4일 국내 태양광 기업인 대명 GN, 인트로메딕과 「팜그리드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
- 팜그리드는 기존 지능형 농업기술인 「스마트팜」과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인 「스마트그리드」를 결합한 개념임

- 이번 협약에 따라 SB에너지는 대명컨소시엄(대명GN, 인트로메딕, LS산전, 한국동서발전)이 경북 영덕군과 함께 추진하는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농·어업 융복합 클러스터에 투자하게 됨
- 대명컨소시엄은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자해 300MW급 태양광발전 단지과 스마트팜 46ha를 조성하는데, SB에너지 투자 규모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임

○ 산업통상자원부,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등 일본 투자 유치

-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등 한국이 가지고 있는 투자처로서의 강점을 알리고 한일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
- 산업통상자원부는 또, 바이오와 첨단소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일본 투자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투자 회의를 열고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면담

□ 인적교류

○ ‘18.3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크게 증가

- 3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47,262 명으로 2월보다 47.0% 증가

○ ‘18.4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 증가

- 4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638,500명으로 3월보다 3.1% 증가

□ 기타 한일경제 관계 관련 언론기사, 보도자료 등

○ 문재인 정권의 1년 (일본경제신문 2018.5.11.)

-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경제이며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,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성과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실업율만 악화되고 있음
- 對日정책에 있어서는 위안부 문제에서만 일본에 자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반면, 그 이외는 한일 양국간 연휴의 강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「투트랙」 전략을 전형으로 하고 있음

II. 이달의 일본경제

1. 경기·무역 동향

□ 2018년 1분기 GDP성장을 -0.6%

- 일본 내각부가 5월 16일 발표한 2018년 1-3월기의 GDP(속보치)는 실질 전기비 0.2% 감소, 연율 환산으로는 0.6% 감소
- 이는 2015년 10-12월기 이후 9분기만의 마이너스 성장으로, 개인소비가 부진한 외에 주택투자도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
- GDP 감소율(전기비 -0.2%)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외수가 0.07% 끌어올린 반면 내수는 0.22% 끌어내렸음
 - GDP의 60%가까이 점하는 개인소비는 2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
 - * 자동차와 휴대전화 지출이 부진. 휘발유 등 일용품의 가격상승으로 소비자심리가 악화된 점도 소비부진에 하나의 원인
 - 주택투자의 부진도 마이너스 내수기여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2.1% 감소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
 - 설비투자는 0.1% 감소로 6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통신기계 분야에서 부진
- 외수에서는 수출이 0.6% 증가로 3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자동차의 수출이 견실한 것으로 보임
 - 이제까지 수출을 견인해왔던 전자부품 디바이스와 공작기계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2분기 연속되었던 2%대의 증가율에 비하면 감속
 - 수입은 0.3% 증가로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외수기여도는 플러스를 기록
- 그러나 앞으로 4-6월기에는 외수의 회복으로 경기가 다시 가속될 전망
 - 다만 미중 무역마찰의 리스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경제에의 마이너스 영향으로 수출주도의 회복력은 약할 가능성이 있음

< 2018년 1분기 GDP성장율 내역 >

		2017	2017				2018p)
			1/4	2/4	3/4	4/4	1/4
GDP	전기비	1.7	0.7	0.5	0.5	0.1	-0.2
	연율환산	1.7	2.6	2.0	2.0	0.6	-0.6
개인소비		1.0	0.5	0.7	-0.7	0.2	-0.0
주택투자		2.7	1.2	0.9	-1.6	-2.7	-2.1
설비투자		2.9	0.6	0.8	1.0	0.6	-0.1
정부소비		0.2	0.2	0.2	0.0	-0.0	0.0
공공투자		1.2	-0.0	4.7	-2.6	-0.4	0.0
수출		6.7	2.1	-0.1	2.0	2.2	0.6
수입		3.4	1.6	1.8	-1.3	3.1	0.3

자료: 내각부, p)는 1차 속보치

□ 경기회복세 주춤(지표 3)

- 3월의 경기동향지수는 전월비 0.4포인트 상승한 116.4
 - 스마트폰 제조용 전자부품의 생산 및 출하가 호조를 보임
- 3월의 실질소비는 전년동월비 0.7% 감소
 - 설비수선 등 주거용 지출이 감소한 외에 춘분이 징검다리 휴일이 된 관계로 해외여행 지출이 감소
-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3월 기계수주액이 전월비 3.9% 감소
 - 석유와 조선업으로부터의 수주가 증가
- 3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비 1.2% 상승
 - 전자부품·디바이스 공업의 생산이 증가
- 3월의 완전실업율은 2.5%로 전월과 같음. 3월의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.01포인트 높은 1.59배
 - 제조업과 건설·운수·우편업에서 구인수가 크게 증가
- 4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비 7.6% 감소
 - 중국과 미국에 대한 실질수출이 부진
- 4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년동월비 0.7% 상승
 - 전기료와 휴대전화기의 가격이 상승, 전월비로는 0.2% 상승

□ 무역흑자 2개월 연속, 엔저

- 4월 무역수지는 7,969억 엔 흑자로 2개월 연속 흑자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911억 엔 흑자에서 1,458억 엔 적자로 반전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6,231억 엔에서 6,157억 엔으로 축소
- 4월 수출액은 전월비 5.4% 증가한 6조 8,223억 엔
 - 5대 수출품목 모두 감소한 가운데, 원동기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큼(지표 4)
 - 주요 지역별로는 EU에 대한 수출만이 증가한 한편,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큼(지표 5)
- 4월 수입액은 전월비 6.1% 감소한 6조 1,963억 엔
 - 5대 수입 품목 중, 액화천연가스의 수입감소폭이 가장 큼(지표 6)
 -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만이 증가한 한편, ASEAN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가장 큼(지표 7)

< 2018년 4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 출	7.4	2.1	11.3	6.8	7.8	5.4	26.9	6.7
수 입	6.6	-0.6	1.5	6.2	5.9	-6.1	26.3	7.3
수 지	0.8	32.1	2,566.7	0.6	30.9	-25.0	0.6	-25.0

자료 : 재무성

- 4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07.4엔으로 전월비 1.3% 엔저
 - 對원화환율은 100엔당 993원으로 전월비 1.8% 원고
- 3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비 208.6% 증가한 12조 104억 엔
 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비 38.7% 감소한 269억 엔
- 3월의 경상수지는 전월보다 47.6% 증가한 3조 1,223억 엔
 - 자동차의 수출증가로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

2. 경제정책

□ 미일 신대화 「FFR」 가동

-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통상대화의 틀이 6월부터 작동을 시작
 - 새로운 협의의 명칭은 FFR로 자유(Free), 공정(Fair), 상호적(Reciprocal)의 두문자를 딴 것임
- 아베 총리는 미일 2국간 FTA를 피하고 싶은 반면, 미국은 2국간 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협의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음
- 모테기 도시미츠(茂木敏充) 일본 경제재정상과 라이트하이버 미국 USTR대표에 의한 협의에서, 아소 다로(麻生太郎) 일본 부총리·재무상과 펜스 미국 부통령에 의한 미일 경제대화에 성과를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게 됨
 - 첫 회의는 일본이 이번 국회에서 TPP 승인안을 심의하고 있는 관계로 국회 종료후 6월말 이후에 조정
- 미국은 이 협의에서 2국간 FTA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. 2국간 쪽이 안전보장도 재료에 유리한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임
 - 상호적이라는 단어에는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트럼프대통령의 의욕이 반영되고 있음
-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한 모테기 경제재정상은 라이트하이버 대표에 「좋은 거래」를 할 것을 주문
 - 수입쇠고기의 관세인하 등 미국의 요구를 논의해가면 결국 미국이 TPP에 복귀라도 하면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
 - 좋은 거래는 FFR을 TPP복귀로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임
- 협의의 성과를 내는 타이밍도 차이가 있음
 - 미국은 가을 중간선거 이전에 성과를 낼 생각임. 일본은 11개국에 의한 TPP의 발효 후까지 교섭을 계속, 장래 미국의 복귀를 기다리는 전략임
- 신협의를 미일정상회담에서 갑자기 결정되었는데 일본은 내각관방의 TPP 등 정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나, 미국의 움직임을 탐색하는 상황임

- 미일 경제협약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에 걸쳐 무역마찰 해소를 목적으로 「SII」로 불리는 미일구조협약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FFR이 미일경제관계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
- 원자력, 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전원을 44%로 의무화
 - 경제산업성이 발전 시 이산화탄소(CO2)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미션(Zero-Emission) 전원의 보급을 본격화하기로 함
 - 일정규모의 전력소매 기업에 대하여 2030년도에 공급전력의 44%를 제로에미션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도 설정함
 - 이는 화력 이외의 전력조달선을 늘리는 외에 신설하는 시장으로부터 제로에미션의 권리를 구입하도록 촉구하여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
 - 제로에미션 전원은 구체적으로는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(대형 수력 포함)를 지칭함
 - 일본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도의 전원구성에 원자력을 20-22%, 재생 에너지를 22-24%로 할 계획으로, 제로에미션 전원은 44%로 되어 있음
 - 그러나 2016년도의 전원구성에서는 이 비율은 17%에 그침
 - 경제산업성은 우선 5월에 일본도매전력거래소(JEPX)에 비화석가치거래시장을 운영기로 함
 - 풍력과 태양광 등 고정매입가격제도(FIT)의 대상전원에 한하여 「비화석증서」를 판매함
 - 전기사업자는 이것을 구입하면 전원구성의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이 높아지게 보일 수 있음
 - 증서의 매각이익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과금의 원자에 충당함
 - 세계적으로는 기업연합 「RE100」이라는 자사에 관련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하는 움직임이 있음. 일부에는 거래선에도 이러한 대응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음
 - CO2의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적은 전기산업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기업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
 - 경제산업성은 전력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, 2015년은 전력의 광역유통 확대, 2016년도에는 전력소매의 자유화를 실현함

- 그리고 대형 전력사들은 2020년도까지 발전부분과 송배전부분을 별개회사로 분리하는 발송전분리가 요구되고 있음
- 이를 실현하는데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탄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기의 소매업자도 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 대응하도록 촉구해야함
- 2030년도 제로에미션 전원을 44%로 하는 목표달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약 470개의 소매전력사업자 중 연간 5억KW이상의 전력공급이 있는 사업자임
- 현 시점에서는 동경전력홀딩스 산하 동경전력에너지파트너나 중부전력 등 대략 50개사 정도가 대상으로 전력량에서 전체의 약 90%를 점하고 있음
- 경제산업성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고나 명령조치를 취할 방침임
- 2019년도 이후 조기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빠르면 2018년도 중으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중간목표의 수치나 도입시기를 결정함
- 경제산업성도 손을 쓰지만 이 제도에는 과제가 많음
- 2030년도의 44%목표는 원전 30기정도의 재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음
- 그러나 재가동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며 이제까지 재가동한 것은 7기에 불과함
- 목표달성을 위해 부족한 제로에미션분을 구입하고 싶은 사업자가 왜도하더라도 구입할 수 없는 사태도 예상됨
- 업자들 간 불공평 문제도 발생할지 모름
- 현재로는 원전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규슈전력은 제로에미션 비율이 30%로 비교적 높고, 원자력이나 대형수력발전을 가지고 있는 대형전력사들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음
- 신전력에는 화력에 편중된 사업자도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직도 많음

3. 기업전략

□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 부진

- 일본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해외기업들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2017년까지 아시아의 4.1배 미국의 86% 증가와 비교하여, 일본은 12% 증가에 그침

- 인공지능(AI) 등 IT(정보기술) 분야에서 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어 제 4차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, 부진한 연구개발이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
- 일본 요코하마시에는 미일 간 연구개발의 차이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음
 - 간판이 없는 전면 유리 건물은 미국의 애플사가 2017년에 가동한 연구소인데, 자동 운전과 AI의 연구, 전자부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
 - 애플의 2017년 연구개발비는 115억 달러로 세계 7위, 10년 전보다 15배나 급증
 - 연구소 가까이에는 파나소닉이 7년 전 폐쇄한 공장의 부지가 있고 2007년 애플의 7배였던 연구개발비는 2017년 3월기에 4,300억 엔으로 10년간 25% 감소함
- 과거 10년간 연구개발비를 비교해보면, 세계 100위까지 일본기업은 17개사로 10년 전의 24개사로부터 감소
 - 세계 3위였던 도요타자동차는 연구개발비를 달러기준으로 26%늘렸으나 순위는 10위로 추락함
 - 순위후퇴가 두드러진 것은 전기업체들이었으며 파나소닉은 15로부터 36위, 소니는 18위로부터 35위로 떨어짐
 - 전기 업체들은 반도체 등 다액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사업으로부터 철수, IoT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하게 된 영향도 있음
- 세계 연구개발비 상위 기업들도 자동차나 의약품 등으로부터 IT 분야로 변화하고 있음
 - 현재 세계 최대 연구개발기업인 미국의 아마존닷컴은 226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8배나 많이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음
 - AI의 개발인원은 2017년에 5천명으로 1년간 5배나 증가함
- 아시아에서는 10년간 4배 증가한 세계 3위의 삼성전자에 더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그룹의 증가가 두드러짐, 알리바바는 2017년 미국·중국·러시아 등 7개소에 시설을 두고, 앞으로 3년간 연구개발에 1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
- 일본 총무성에 의하면 일본정부 등도 포함한 일본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1,800억 달러로 미국의 5천억 달러, 중국의 4,1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임

- GDP대비로는 3.6%로 미국(2.8%), 중국(2.1%)를 상회하고 규모로는 일본은 아직도 연구개발대국이라고 할 수 있음

○ 그러나 일본은 연구개발의 토대, 기초연구에서 특히 부진함

- 다이와종합연구소 관계자에 의하면 장래에도 미국,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함
- 연구개발은 산업의 성장력에 직결되는 만큼, 선택과 집중으로 부활하여 최고이익을 갱신한 지금이야말로 일본기업은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임

□ 신일철 주금, 「일본제철」로 사명변경과 함께 사업재편

○ 일본의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이 5월 16일, 2019년 4월1일에 사명을 일본제철로 변경한다고 발표

- 산하 일신제강을 완전자회사하고 2019년 4월에 양사의 스텐레스 강판사업을 통합할 계획임

○ 신일철주금은 2012년 10월 구 신일본제철과 구 스미토모금속공업이 합병하여 발족됨


- 새로운 사명은 6월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되는데, 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구 일본제철의 사명을 약 70년 만에 사용하게 됨

○ 2019년 1월에는 주식교환으로 일신제강을 완전자회사화 하고, 4월에는 완전자회사인 신일철주금스텐레스와 일신제강의 스텐레스철판사업 등을 통합

○ 금년 3월에는 산요 특수제강을 자회사로 한다고 발표한데 이어, 스웨덴의 대형 특수강업체 오바코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

○ 구 신일철제철과 스미토모금속공업이 통합된 이후 5년 반 동안 중국기업의 대두로 세계 2위였던 철강 생산량은 4위로 밀렸는데 내수가 부진한데다 글로벌 전개도 생각처럼 진전되지 않음

○ 새로운 일본제철은 철강 시황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지금이 호기라고 보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세의 발판을 굳힐 계획임

- 사명의 변경과 함께 세트로 발표된 일신제강의 자회사화는 2019년 1월에 출자비율을 51%에서 100%로 높이게 됨
- 스텐레스 철판사업에서 양사의 기술을 공유하여 신제품개발과 거점을 활용하여 최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번 재편으로 연간 100억 엔의 통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

III. KJCF News

□ 한일관계 Pick-up

- 한일 통상장관회의 개최(일본경제신문 2018.5.9.,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.5.9)
 - 5월 8일 한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코 히로시게(世耕弘成) 일본 경제산업상은 경제산업성에서 회담을 가짐
 - 세계적인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 외에 교섭중인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휴(RCEP)의 조기타결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의견을 같이하기로 함
 -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일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언급한데 대하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 장관은 신산업(4차 산업혁명), 에너지, 통상 등 공통 과제를 같이 해소하고 싶다고 말함
 - * (신산업)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 윈-윈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협력
 - * (에너지) 양국이 주요 LNG 수입국으로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것에 합의, 신재생에너지·수소 등 미래에너지 전환 협력을 강화
 - * (통상) 일본이 의장국인 2019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RCEP, 한중일 FTA 협상의 진전에 협력
 - 한일 양측은 신산업·에너지·통상 분야 협력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확인, 이들 협력 분야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를 위해 한일 산업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
 - TPP에 대해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금년 중 한국의 참가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 있었음

□ 한일재단 사업 및 행사 개최

2018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 매칭상담회

일시 : 2018년 4월 5일 09:30 ~ 18:00

장소 : 일본 도쿄 시나가와프린스호텔 28F 「에메랄드」

개요 : 사전 온라인매칭이 성사된 국내기업과 일본기술자 간의
계약조건, 기술탐색 구체화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
1:1 대면상담 (90분/건, 순차통역)

규모 : 한국기업 37개사, 일본 기술자 78명, 총 상담 100건

**제조현장 모노즈쿠리 경영자 육성(1차)**

일시 : 2018년 5월 14~19일

장소 : (국내과정)시흥시 (일본과정)나고야시

개요 : 모노즈쿠리 현장개선기법 이론교육 및 한국과 일본의
제조현장 견학을 통한 현장개선기법을 활용한 제안서
작성 트레이닝

주최 : 산업통상자원부

주관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**제50회 한일경제인 회의**

일시 : 2018년 5월 15~16일

장소 : 일본 도쿄 오키다호텔

주제 :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함께 축하하고, 경제·인재·
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!

- 세션1 : 한일경제제휴·교류, 거시적·미시적 관점
- 세션2 : 미래지향, 다음 50년의 관점

주최 : (사)한일경제협회, (일사)일한경제협회

협력 : 산업통상자원부,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* 일본측에서는 다카마도노미야 황비, 아베수상등이 참석,
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를 축하



□ 한일재단 모집 안내

1) 2018년도 제조혁신 전문가활용현장 혁신지도(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) 참가자 모집

- “제조현장 출신 베테랑 퇴직 기술자에게 제2의 인생을”
 - 일본 제조업 부활의 원동력인 모노즈쿠리 노하우를 체계화시킨 도쿄대 후지모토 교수의 모노즈쿠리 이론교육 및 현장개선 지도방법 훈련
 - 과정 수료 후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지도자 및 강사로 활동
 - 중소기업의 생산 및 현장혁신 노하우 지도를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
- 대상 : 제조기업 베테랑 퇴직 기술자(현장경력 25년 이상) *2018년 6월 퇴직예정자 포함
- 일시 및 장소
 - 일본과정(기본) : 2018. 7. 15(일) ~ 7. 25(수) / 10박 11일 / 일본 도쿄
 - 국내과정(심화) : 2018. 9. 3(월) ~ 9. 7(금) / 4박 5일 / 국내 지도기업, 연수원
- 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453 참조

2) 2018 일본 모노즈쿠리 IoT 연수 참가자 모집

- 일본 제조업의 원동력인 모노즈쿠리에 IoT를 활용한 일본의 “모노즈쿠리 IoT” 활용현황 파악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더스트리 4.0 제조혁신 방향성을 제시하여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의 필요성 및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수
- 대상 : 중소·중견기업 공장개선/품질개선/생산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·팀장급 이상인 자
- 일시 : 2018. 7. 2(월) ~ 7. 5(목) / 3박 4일
- 장소 :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등
- ☞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447 참조

IV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- 『일본기업_해외에서 길을 찾다_샤토레제HD』 2018-05-17
- 『2018년도판 중소기업백서』 2018-05-10
- 『가속화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』 2018-05-08
- 『일본기업_해외진출로 승부_NTT데이터』 2018-05-03
- 『일본 제조업의 자국내 유통과 시사점』 2018-05-02
- 『일본기업_대기업병과의 싸움_야후재팬』 2018-04-26
- 『고령자의 생활을 지키는 IoT·AI 기술』 2018-04-24
- 『일본기업_닛산자동차와의 결별_칼소닉 간세이』 2018-04-19
- 『한일 장수기업 비교연구』 2018-04-17
- 『가격 인상 단행_도리기조쿠』 2018-04-12
- 『만년 4위의 새로운 도전_코니카미놀타』 2018-04-10
- 『선점하는 경영개혁으로_가고메』 2018-04-05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무역관계를 변화시키는 한일기업의 서플라이체인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8년 5월 19일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im/pdf/10455.pdf>
- 『품질의 철저, 다품종소량생산을 강점으로 : 체결부품이커, 지역미래견인기업 NO6』 경제산업성, 2018년 5월 19일
<https://meti-journal.jp/p/243>
- 『무역과 북한, 2개의 불씨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2018년 5월 12일
<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pdf/macro/2018/kuma180511ET.pdf>
- 『인공지능(AI)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: 일본의 실태』 경제산업연구소, 2018년 5월 12일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summary/18050004.html>
- 『일본무역의 현황』 일본무역회, 2018년 5월 11일
<http://www.jftc.or.jp/research/index.html>
- 『경제정책에 관한 100가지 제언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8년 5월 9일
<https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urgency/report180508.pdf>
- 『수출과 무역마찰 문제 : 환율보다는 세계수요』 스미토모상사글로벌리서치, 2018년 5월 9일
<https://www.scgr.co.jp/report/survey/2018050832177/>
- 『일손부족문제에 대한 중장기대책』 일본 자민당, 2018년 5월 9일
https://jimin.ncss.nifty.com/pdf/news/policy/137303_1.pdf
- 『세계 각국의 물가수준 : 일본과의 비교』 국제금융정보센터, 2018년 4월 24일
<http://www.jcif.or.jp/View.php?action=PublicWorldReport&R=41>

V. 한일경제지표

1) 2018년 4월 對日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2,626	9.6	5.9	2,479	17.6	-5.6	10,136	16.8
1	철강제품	343	2.2	3.9	344	6.8	0.3	1,371	8.2
2	광물성연료	350	48.3	-27.1	330	63.6	-5.7	1,634	68.8
3	석유화학제품	182	18.8	16.7	212	34.8	16.5	707	27.3
4	정밀화학제품	168	35.6	-5.6	158	34.9	-6.0	643	38.0
5	전자부품	170	18.4	37.1	153	9.1	-10.0	600	7.1
6	수송기계	114	-47.6	-13.6	127	23.0	11.4	483	-13.5
7	산업용전자제품	166	19.6	36.1	97	-18.1	-41.6	527	7.1
8	농산물	97	2.5	19.8	95	19.4	-2.3	365	9.4
9	금속광물	70	-7.5	-24.0	91	30.3	30.0	340	11.9
10	기계요소공구·금형	92	-2.0	17.9	81	-9.1	-12.0	349	-1.2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) 2018년 4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 목 명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5,213	1.1	16.4	4,929	7.9	-5.4	19,127	6.5
1	정밀기계	855	1.4	21.6	721	5.6	-15.7	2,986	14.2
2	철강제품	653	19.2	21.4	602	16.0	-7.9	2,335	15.3
3	전자부품	606	-1.0	24.2	524	8.6	-13.5	2,192	5.4
4	정밀화학제품	408	16.0	9.9	443	25.3	8.6	1,601	17.8
5	석유화학제품	355	-24.0	3.8	343	-15.2	-3.4	1,412	-13.0
6	산업용전자제품	307	7.5	18.5	285	19.4	-7.2	1,088	13.9
7	기초산업기계	274	-17.7	26.3	251	-17.3	-8.4	983	-10.4
8	수송기계	291	39.7	23.8	243	26.5	-16.5	933	18.1
9	플라스틱제품	196	-0.7	11.4	201	3.8	2.6	744	-1.2
10	산업기계	205	-3.2	19.9	197	9.2	-4.0	709	1.1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7	2017		2018			
			3/4	4/4	1/4	2월	3월	4월
GDP증가율(실질,연율,%)		1.7	2.0	1.6	-0.6p)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-	116.0	116.4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4.5	4.2	4.6	-	4.1	1.4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-0.3	0.0	0.5	-	-0.9	-0.7	-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	-1.1	2.8	0.3	-	2.1	-3.9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0.1	0.3	-	0.1	0.0	0.2
	전년비	0.5	0.6	0.9	-	1.0	0.9	0.7
실업률(%)		2.8	2.8	2.7	-	2.5	2.5	-
수출액(조엔)		78.3	19.6	20.9	6.7	6.5	7.4	6.8
수입액(조엔)		75.4	18.4	20.1	6.7	6.5	6.6	6.2
무역수지(조엔)		2.9	1.2	0.8	-0.02	0.03	0.8	0.6
경상수지(조엔)		22.0	7.0	4.3	5.8	2.1	3.1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55.3	11.5	13.1	20.3	3.4	12.0	-
환율	달러	112.1	111.0	113.0	108.1	107.8	106.0	107.4
	원화(100엔)	1,009	1,020.3	1,001	990	998	1,011	993
금리(10년물,%)		0.052	0.046	0.052	0.059	0.063	0.040	0.050
주가(닛케이,엔)		20,209	19,880	22,187	22,367	21,992	21,396	21,869

주: p)는 1차 속보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4) 2018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 엔%)

순위	품목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자동차	10,965	5.4	0.4	10,712	15.3	-2.3	41,250	10.8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463	4.3	15.7	3,411	4.3	-1.5	11,900	-5.9
3	자동차부품	3,639	0.4	4.1	3,389	0.3	-6.9	12,996	1.3
4	철강	3,037	-0.3	12.3	2,618	1.1	-13.8	11,107	2.6
5	원동기	2,898	10.8	28.3	2,495	5.0	-13.9	9,698	6.5

자료 : 일본 재무성

5) 2018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4,396	10.8	33.3	13,169	10.9	-8.5	49,967	9.3
2	미국	13,559	0.2	6.2	12,863	4.3	-5.1	49,849	2.5
3	ASEAN	11,391	6.4	14.4	10,126	7.6	-11.1	40,720	7.4
4	EU	8,034	0.3	2.9	8,193	14.1	2.0	31,210	10.8
5	한국	5,479	-3.2	14.9	4,813	-4.3	-12.2	19,846	-0.1
6	대만	4,087	0.7	11.2	3,832	0.8	-6.2	15,145	0.8

자료 : 일본 재무성

6) 2018년 4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7,218	5.7	9.4	6,643	16.9	-8.0	27,571	8.8
2	액화천연가스	4,134	12.1	-3.3	2,959	-4.0	-28.4	15,530	10.1
3	의류·동부속품	2,268	-20.1	-15.8	2,513	4.4	10.8	11,170	9.6
4	석탄	2,117	-12.2	0.1	2,175	13.9	2.7	10,811	25.2
5	의약품	2,239	-1.5	-14.2	2,151	2.0	-3.9	9,600	10.8

자료 : 일본 재무성

7) 2018년 4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3월			2018.4월			2018.1-4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3,485	-16.8	-10.4	14,627	2.2	8.5	60,551	2.1
2	ASEAN	10,256	3.4	-1.2	8,895	1.2	-13.3	40,290	8.0
3	EU	8,193	11.7	11.6	7,163	9.0	-12.6	30,877	12.6
4	미국	7,328	0.6	13.6	6,706	3.9	-8.5	27,657	4.4
5	호주	3,875	4.8	-6.1	3,874	12.9	-0.01	15,781	11.1
7	한국	3,013	12.8	4.3	2,741	16.7	-9.0	11,680	14.7

자료 : 일본 재무성